

호주의 농업 및 농업정책 개요 *

김 종 선

1. 호주 농업의 연왕

1.1. 호주의 농업지대 및 농가 경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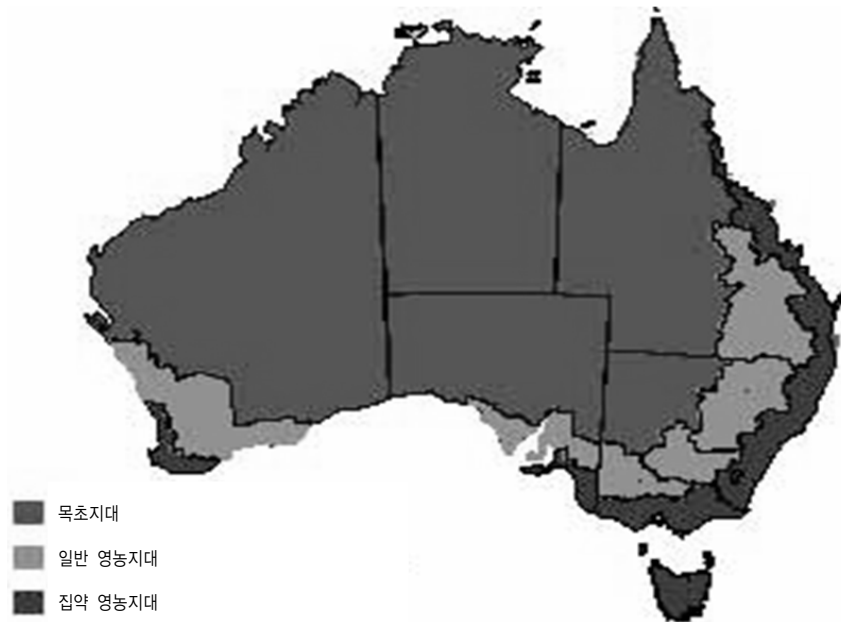
호주에서의 농업활동은 기후, 토질, 농업용수 활용가능 정도(water availability), 시장과의 근접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 세 가지의 지리적 지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목초지대(Pastoral zone)는 강우량이 매우 적고 토양이 상대적으로 비옥하지 않아 가축의 방목용으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다. 호주의 북부 열대지역과 중앙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지대와 반 건조지대가 포함된다. 이 지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긴 하지만, 강우량이 매우 적어 일반적인 영농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다. 일반 영농지대(Wheat-sheep zone)에서는 기후나 토양의 여건상 일반적 작물재배가 가능하며, 소나 양 등 가축의 사육도 목초지대에 비해 더욱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집약 영농지대(High rainfall zone)에는 퀸즐랜드(Queensland),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주의 대부분의 해안지역, 서 호주(Western Australia)의 일부 해안 지역, 그리고 타즈마니아 (Tasmania)의 전 지역이 포함된다. 집약적 영농지대는 집약적 작물재

* 본 내용은 호주의 농업 및 농업정책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선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sun589@krei.re.kr, 02-3299-4210).

배와 가축사육에 더 적합한 지대로 대부분의 축산업이 강우량이 많은 해변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림 1 호주의 농업지대 구분



2005-06년¹⁾ 기준, 호주의 농가 수는 총 154,700호이다. 이중 목초지대(Pastoral zone)에는 6,600 농가 (농가당 47,400 ha), 일반 영농지대(Wheat-sheep zone)에는 64,600 농가 (농가당 1,400 ha), 그리고 집약 영농지대(High-rainfall zone)에는 83,500 농가 (농가당 397 ha)가 분포되어 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농가 수는 지난 40년 동안 거의 연평균 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의 농업고용자수도 1999-2000년 약 437,000명에서 2009-10년 약 363,000명으로 17%가 감소하였다 (Hogan et al. 2010).

2008-09년에는 약 136,000명의 상업농(Commercial-scale farms)²⁾이 세 농업지대에 위치

1)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에 끝이 난다. 따라서 회계 연도 2005-06년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를 의미한다.

2) 호주 통계국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서는 농업생산액이 5,000호주달러 이상인 농가를 상업농(Commercial-scale farms)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는 주요 농촌지역의 중심지에 거주하면서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주로 농업 이외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대규모 농가는 농업생산량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장집중도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09년을 기준으로 경영면적 상위 30%의 축산농가가 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30%의 축산 농가는 총 생산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농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들 대규모 농가는 획기적인 농업경영 계획 수립,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 활용, 수준 높은 다양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어 소규모 농가에 비하여 보다 나은 경영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 농가의 98% 이상이 가족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농가 중 대규모 가족농과 비(非)가족농 (non-family farm)의 비율은 낮지만 총 농산물생산액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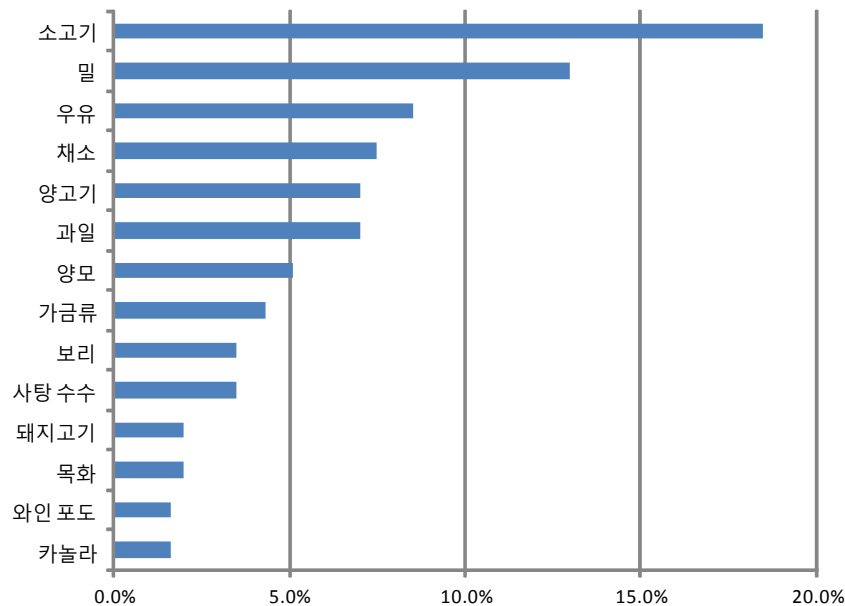
또 다른 호주 농업의 특징은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2001년 51세에서 2006년 52세로 높아졌다. 주목할 만 한 점은 65세 이상의 농업인의 비율이 2001년 15%에서 2006년 18%로 높아진 반면 35세 미만의 농업인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Lubulwa et al. 2010).

연간 농가소득의 변동성과 농가 교역조건의 장기 하향 추세 또한 여러 해 지속되고 있는 호주 농업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날씨와 기후의 영향은 농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1982-83년, 1994-95년, 2002-03년, 2006-07년은 가뭄이 심각했던 해였던 동시에 농가소득이 아주 낮았던 해였다.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은 강수량과 같은 기후에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산불 (bushfire)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병해충의 발생에도 영향을 받는다. 생산량 변동성은 곡물이나 유지류(oilseeds) 생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2. 농산물 생산

호주의 실질 농업총생산액은 1969-70년에는 370억 호주달러에서 2009-10년에는 410억 호주달러로 40년 동안 연평균 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Hogan et al. 2010). 이 기간 동안 작물생산액은 연평균 1.1% 증가하였고, 축산분야의 실질 총생산액은 연평균 0.4% 감소하였다. 실질 농업총생산액은 2001-02년에 500억 호주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이후 심각한 가뭄과 열악한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호주 농업총생산액에서 주요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 (20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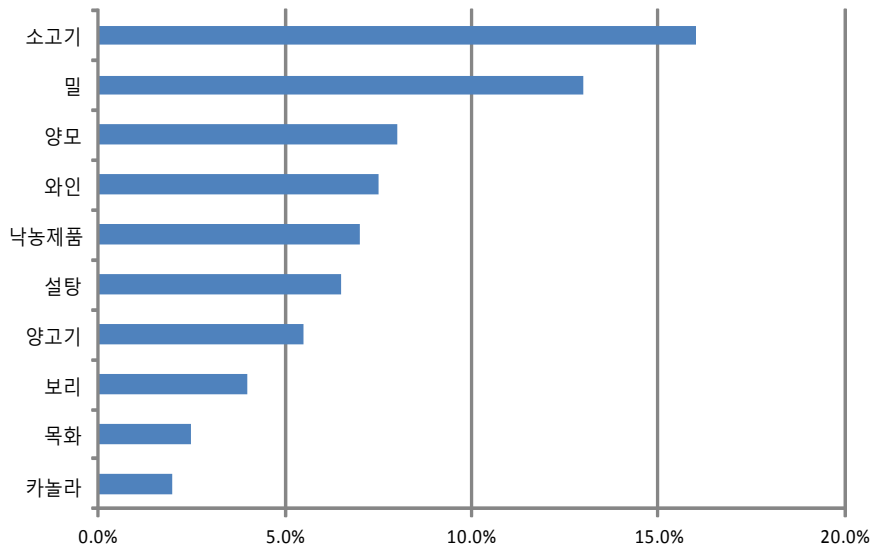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y statistics, 2011.

호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로는 소고기, 밀, 우유, 채소, 과일, 양고기, 양모 등이며 이 품목이 호주 농업총생산액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생산성은 농산물의 산출량과 농가의 이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호주 농림수산부 (DAFF)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주요한 농업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 (ABARES)에서는 대 평지 (broadacre) 농업과 낙농업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농산물의 총 산출량과 총 투입요소 (토지, 노동, 자본, 자재, 서비스 등)를 결합한 총 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지수를 개발하여 1990년대 초부터 정책수립 등을 위해 사용해 오고 있다. 대 평지 농업부문 (비 관개형 작물재배, 소나 양의 방목 등)의 총 요소 생산성 (TFP)은 1977-78년부터 2009-10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농작물의 경우 1.6%, 작물과 축산의 복합영농은 1.1%, 소는 1.4%, 양은 0.5%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영농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DAFF, 2012). 최근에는 작물재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 축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크게 늘어나면서 작물재배업과 축산업간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낙농업의 총 요소 생산성은 1978-79년 이후부터 연평균 0.3%의

그림 3 호주 농산물 수출액에서 주요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 (2009-10)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y statistics, 2011.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낙농 생산시스템이 더욱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입요소의 증가로 인해 산출량의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3. 농산물 교역

호주 농산물의 약 60% 정도가 매년 해외로 수출되는 등 호주 농업은 수출 지향적 산업으로 볼 수 있다. 호주는 밀, 소고기, 양모, 낙농제품의 주요 수출국이다. 2008-09년 기준으로 보면, 가공하지 않은 순 양모 (raw wool)는 세계 수출시장의 67%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양고기의 경우 세계 수출시장의 약 31% (세계 2위), 보리는 19% (세계 4위), 밀은 10% (세계 5위), 치즈는 17%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Hogan et al. 2010).

2009-10년 호주의 농산물 수출액은 290억 호주달러에 달했고, 이중 농작물 수출은 총 수출액의 53%를 차지하는 150억 호주달러, 축산물은 47%를 차지하는 130억 호주달러였다. 2009-10년에 소고기, 밀, 양모, 와인, 낙농제품, 설탕, 양고기 수출이 호주 농산물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2008-09년 호주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이 총 농산물 수출액의 16%, 중국은 10%, 미국은 9%, 인도네시아는 8%, 유럽연합은 8%를 차지하였다. 동남아시아, 중

국과 일본이 호주 농산물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농식품 수출은 1990년대 동안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00-01년에 최고치인 340억 호주달러(2009-10년 물가 기준)에 이르렀다. 그 이후 가뭄의 영향과 국내의 수요 증가로 인해 농식품 수출은 2009-10년에 240억 호주달러까지 감소하였다. 농식품 수입은 2009-10년에 100억 호주달러까지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호주의 농식품 순 수출액은 2000-01년 270억 호주달러에서 2009-10년 140억 호주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2010-11년에는 160억 호주달러로 다소 상승하였다.

2. 호주의 농업정책

2.1. 호주 농업정책의 틀

최근 호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농업분야의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시장기반 메커니즘 (market-based mechanisms)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개혁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개혁은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호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호주 농업이 당면하게 될 물리적, 경제적, 정책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의 개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호주 농가의 역량이 중요하며,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정부는 1980년대 중반이후 농업생산과 교역을 왜곡하는 정부정책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생산자 지원 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비율³⁾을 1986년 13%에서 2009년에는 3%까지 낮췄다. 같은 기간 동안 OECD 회원국의 생산자 지원 추정치 비율은 37%에서 22%로 낮아졌지만, 한국, 일본,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생산자 지원 추정치 비율은 1986년 20%에서 2009년에는 0%로 낮아졌다.

1980년대 중반이후 호주정부의 농업 생산자 지원 정책의 대상이 크게 변화되었다. 1986년에는 생산자 지원 정책의 75%가 시장가격 지원이었으며, 16%가 연료세액공제

3) 생산자지원 추정치 (PSE)는 OECD에서 회원국들의 농업지원 수준을 산출하고 비교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정부 지원정책(시장가격지원, 재정지출 등)을 통해 매년 농가로 이전되는 금액을 측정한 것이다. 생산자지원 추정치 비율은 총 농가수취액에서 PSE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였다. 2000년 우유 산업의 시장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장가격지원은 거의 사라졌으며 2009년에는 투입재에 대한 재정지출이 주를 이루었다.

호주 정부의 일반 서비스 지원(General services support)은 1986년 1억 호주달러에서 2009년 8억 호주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1986년에는 호주연방 과학 및 산업 연구기구(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⁴⁾를 통한 공공부문 연구투자(R&D) 지출이 유일한 일반서비스 지원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R&D에 대한 공공투자는 계속 증가하였고 더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2009년에는 전체 일반 서비스 지원의 75%를 차지하였으며, 농산물 검역서비스 지원에 12%,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에 11%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호주의 농업정책은 다음 다섯 가지의 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위험관리 및 조정 정책 (risk management and adjustment policies)이다. 위험관리 및 조정 정책에는 가뭄 정책 (drought policy), 기후변화 대응 정책 (climate change adjustment policies), 생물안전(biosecurity), 자연재해 대비 및 복구 정책 (natural disaster relief and recovery arrangement)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농가소득 안정화 관련 정책 (Policies that address income variability issues)이다. 농가소득 안정화 관련 정책에는 농가소득이 낮은 해를 대비해서 농가소득이 높은 해에 예금을 하도록 장려하는 ‘농업경영 예금 제도 (farm management deposit scheme)’와 누진적 개인 소득세제와 관련하여 왜곡된 부분을 감면하는 ‘세금 감면 (tax averaging)’제도가 포함된다. 세 번째는 물 시장 개척 (development of water markets)으로 기후변화와 가뭄현상으로 인한 수자원의 가용성 악화를 줄이기 위해서 배타적이고, 시행 가능하고, 이전 가능한 물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물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네 번째는 민간 부문의 저조한 R&D 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R&D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호주 농산물을 위한 시장 접근 (Market access for Australia's agricultural commodities)으로 호주 정부의 무역정책은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과 여러 국가들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미국, 칠레)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들 수 있다.

호주 농림수산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는 2010-11년 2개의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모두 15개의 정책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약 9억 5천만 호주달러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2개의 정책 목표와 15개의 정책 프로그램은

4) CSIRO는 과학연구를 위한 정부조직이며, 1926년 과학분야 자문기구로 처음 설립되었다. 현재 6,000명 이상의 연구원과 조직원이 호주 전역에 50개 이상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CSIRO는 우주과학, 지구과학, 에너지 기술, 식품 과학, 축산업, 해양 및 대기 연구 등 13개의 세부 분야별 연구부서에서 다양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다음과 같다.

두 가지의 정책목표 중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호주의 농업과 농식품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며, 국제적인 경쟁력과 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정책 목표는 해외 시장을 유지하고 국내 경제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외래의 병해충으로부터 가축과 식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표 1 호주 농림수산부(DAFF)의 정책 프로그램 (2010~11)

정책 목표	정책 프로그램	주 담당 부서
정책 목표 1	1.1 기후변화 대응-호주의 농업 미래	기후변화/농업생산성
	1.2 지속 가능한 관리-천연 자원	지속 자원관리
	1.3 산림업	기후변화
	1.4 어업	지속 자원관리
	1.5 원예산업	농업생산성
	1.6 양모산업	농업생산성
	1.7 곡물산업	농업생산성
	1.8 낙농산업	농업생산성
	1.9 축산업	농업생산성
	1.10 농업 자원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농업생산성
	1.11 가뭄 프로그램	기후변화
	1.12 농촌지역 프로그램	기후변화
	1.13 국제 시장 접근	무역 및 시장 접근/생물안전
정책목표 2	2.1 수입 검역과 수출 서비스	생물안전
	2.2 식물과 동물 건강	생물안전/농업생산성

자료: DAFF, annual report, 2010~11.

15개의 정책 프로그램과 담당부서는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다. 15개의 농업정책 프로그램 중 호주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업정책 방향 수립에도 참고가 될 만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과 가뭄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2.2.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 호주의 농업 미래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농업생산자가 농업생산성 제고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농림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법 규정과 정책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4천 5백만 호주달러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탄소제한

영농계획 (Carbon Farming Initiative, CFI)’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탄소제한 영농계획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관리 방식을 변화시켜 농업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거나 없앴으로써 소득을 얻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또한 호주 정부는 CFI 농지관리 커뮤니케이션 (CFI Landcare Communications)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와 농지 소유자가 탄소배출 거래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호주의 농업 미래 (Australia’s Farming Future)’는 농업생산자가 기후변화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조정, 그리고 기후변화 연구 등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2.2.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기후변화 적응 파트너십 프로그램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artnership Program, CCAPP)은 농업과 임업 등 1차 산업 생산자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과 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4년 동안 5천만 호주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FarmReady, 지역네트워크와 역량 제고 (Community Networks and Capacity Building), 정보 서비스 (Information Services) 등을 통해 농업생산자 등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FarmReady는 생산자, 산업, 농업인단체, 천연자원 관리 단체들에게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성(self-reliance)과 준비성(preparedness)을 향상시키고 교육훈련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농림어업 생산자 및 단체들에게 자립성과 준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61개의 조직 및 단체를 대상으로 64개 프로젝트에 약 9백만 호주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을 위해 FarmReady 사업은 위험관리, 비즈니스 관리, 새로운 기술의 습득 및 활용 등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의 참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7,500명이 이 사업의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2011년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 (ABARES)에 시행된 FarmReady 사업 평가에 따르면, 이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업 신청자들은 신청과정이 간편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교육 및 훈련 담당자와 사업 수혜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아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호주의 농업미래’ 프로그램의 ‘지역네트워크와 역량제고(Community Networks and Capacity Building)’ 사업은 이들의 리더십과 표현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

은 청소년, 여성, 호주 원주민, 그리고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여성 농업인(Recognizing Women Farmers)’과 ‘차세대 농업인 (Next Gen Farmers)’ 육성을 위한 52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 2백만 호주달러를 지원하였다.

2.2.2. 기후변화 조정을 위한 지원

기후변화 조정 프로그램 (Climate Change Adjustment Program, CCAP)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생산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응하고 향후의 농업 및 농외소득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컨설팅 및 교육 보조금 사업’, ‘퇴출농 보조금 사업 (re-establishment grants)’, 그리고 ‘전환기적 소득 지원 프로그램 (Transitional Income Support Program)’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11년에 CCAP 프로그램은 전환기적 소득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포함한 1,113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 및 교육에 대해 1인당 최대 5,500호주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전환기적 소득 지원 프로그램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831명의 농가에 대해 지원하였다.

퇴출농 보조금 사업 (re-establishment grants)은 농장을 매각하고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 최대 1인당 150,000 호주달러를 지원하며, 최소한 5년 동안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2.2.3. 연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 (Climate Change Research Program, CCRP)은 농업생산자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혁신적 연구와 농장에서의 시범 등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생산자들이 농업경영 방식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인 여러 대안들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8년부터 CCRP 프로그램에 대한 총 투자액은 약 1억 3천만 호주달러에 달한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농업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 축산과 곡물생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배출 가스량 측정 방법 개발, 그리고 새로운 혁신 기술을 농업생산이나 농산물 가공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대한 시범사업 등이 있다.

호주 정부는 ‘호주의 미래농업’사업의 마지막 해인 2011-12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CRP를 통한 연구·개발, FarmReady를 통한 교육 및 훈련, 지역네트워크 조성 및 역량 제고에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FarmReady 프로그램은 농업관광과 농식품

관광 교육과정까지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3. 가뭄 프로그램 (Drought Programs)

가뭄 프로그램은 가뭄과 같은 예외적 상황 (exceptional circumstances, EC)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예외적 상황(EC) 지원은 심각한 가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나 지역사회에 대한 호주 정부의 주요한 지원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지원은 예외상황 구호 지불 (EC Relief Payment), 이자율 보조 (interest rate subsidies), 농업경영 예금 (Farm management deposit), 사업계획 보조(business planning grants), 퇴출농 보조(farm exit payments), 사회지원 대책(social support measures)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0-11년 호주정부의 EC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은 약 4억 호주달러이며, 이는 2009-10년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는 예외적 상황(EC)으로 선포된 농경지 면적이 2010년 6월 기준으로 26.1%에서 2011년 6월에는 0.3%로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예외상황 구호 지불(EC Relief Payment)은 소득지원 지불(income support payments)이라고도 불리며, 호주 연방정부의 대국민지원부(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와 센터링크 (Centrelink)를 통해 지급되며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농가나 소규모 사업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2010-11년에 호주 정부는 12,626 가구 (농가 11,872, 소규모 사업자 791명)에 대해 모두 1억 4천만 호주달러를 지출하였다.

예외상황 이자율 보조 (EC Interest Rate Subsidy)는 예외적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 대한 사업 지원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예외상황이 선포된 첫해에는 농가나 소규모 사업자가 지고 있는 부채 이자의 50%, 두 번째 해와 그 이후에는 부채 이자의 80%를 보조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90%와 10%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예외적 상황 선포 지역의 농기업체들이 가뭄과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에 도움을 얻기 위해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임시 소득 지원(Interim Income Support)을 통해 임시적으로 예외 상황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가와 소규모 사업자에 지원하고 있다. 가뭄정책 개혁은 2011-12년에도 호주 정부의 우선 정책이 될 예정이다.

농가경영 예금제도 (Farm Management Deposits Scheme)는 기후변화와 시장여건 변화로 인한 농가소득의 변동성을 줄이고 보다 자립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지원되는 세금연계형 위험관리 대책이다. 이 제도는 농가소득이 낮은 해에는 낮은 소득세율로 개별

농가들이 세금혜택을 볼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해에 예금한 소득을 (1년 이상 예치해야하며 40만 호주달러까지만 가능)을 소득이 낮은 해에 인출할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예외 상황이 선포된 지역의 농가가 농가경영 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최근 가뭄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 (National Review of Drought Policy)를 실시하였다. 가뭄 지원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기후적 측면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호주 중앙정부는 서 호주 지방정부 (The Western Australian Government)와 합작으로 2010-11년 서 호주의 일부 지역에 가뭄 개혁 대책 (drought reform measures)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시범사업은 농가들이 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에서 위험관리 (risk management)로 전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농가와 지역사회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를 스스로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2012년 6월까지 연장하고 시범사업 지역도 서 호주의 남서지역까지 확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2011-12년 4천 4백억 호주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농업경영 계획 수립 (Farm planning) 교육과정, 농업경영체 지원 (Building farm business), 활력있는 지역사회 조성 (Stronger rural communities), 농가 지원 정책 (Farm Family Support Programs), 퇴출농 지원 (Farm exit support) 등의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농업경영 계획 수립 (Farm planning) 교육과정은 기대 이상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며, 372명의 농업인들이 농업경영 계획수립 교육과정을 통해 농업경영을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방법 등을 이수하였다. 또한 활력있는 지역사회 조성 (Stronger rural communities)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후변화로 야기된 농업분야의 침체를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7개의 지역에 약 1백만 호주달러를 지원하였다.

그 외 호주 정부는 ‘국가보존 (Caring for our country)’ 프로그램을 통해 잘 보존되고 관리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국가 예비 체계 (National Reserve System), 생물 다양성과 자연의 상징 (biodiversity and natural icons), 해안 환경과 주요 수생물 서식지 (coastal environment and aquatic habitats),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 (sustainable farm practices), 호주 북부지역의 자연자원 관리 (natural resource management in northern and remote Australia), 지역사회의 교육 활동 등 6개의 주요 분야에 대해 2008년부터 5년 동안 20억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보호 운동 (Landcare movement)은 6,000개 이상의 지역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토지관리 방안을 통한 농경지 관리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11년에는 국가보존 프로그램에서 271개의 국토보호 프로젝트에 1천 6백만 호주달러를 투자하였다.

이와 같이 호주의 농업 정책은 당면하고 있는 도전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자원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주력하고, 농업생산자 및 지역사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의 농업여건과 우리나라의 여건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있지만, 호주의 농업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BARES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 and Sciences). 2011. *Agricultural commodity Statistics 2011*.

DAFF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2010-11. *Annual report*.

Hogan. L. and Morris, P. 2010.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choices in Australia'. ABARE-BRS conference paper 10.15.

Lubulwa, M, Martin, P, Shafron, W and Bowen, B. 2010. 'Statistical integration in designing Australian farm surveys'. ABARE-BRS conference paper 10.13.

OECD. 201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1*.

DAFF, www.daff.gov.au